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토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9

네 번째 큰 기둥—복음

(2)

바울의 복음의 중심

성경: 롬 1:1, 3-4, 9, 15-16, 2:16, 8:2-3, 9-11, 28-30, 16:25

I.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제시한다—갈 2:5, 14.

- A. 복음의 진리의 첫째 방면은 타락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다—갈 2:16상.
- B.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갈 2:16하.
 - 1.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된다—요 3:15.
 -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갈 2:17, 3:14, 28, 5:6.
 - 3.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단지 위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문제이자 생명 안에 있는 문제이다.
 - 4.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실 수 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전 1:30.

II. 바울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다—롬 16:25.

- A. 바울의 복음은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의 모든 방면을 포함한다.
 - 1. 마태복음에서 왕국 복음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천국의 시민들로 만드는 것이다—마 28:19, 24:14, 롬 14:17, 갈 5:21.
 - 2. 마가복음에서 복음 전파는 옛 창조물의 일부를 새 창조물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막 16:15-16, 롬 8:20-21, 갈 6:15.
 - 3. 누가복음에는 구속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끄는 용서의 복음이 있다—눅 24:46-47, 1:77-79, 2:30-32, 엡 1:3, 7, 갈 3:14.
 - 4.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증가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요 20:31, 15:16, 롬 8:10, 6, 11, 12:4-5, 갈 3:28, 4:19, 6:10, 16.
- B. 바울의 복음은 신약 계시의 중심이다—롬 1:1, 9.
 - 1. 바울의 복음은 과정을 거치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다—고전 15:45하, 고후 3:17, 갈 3:2, 5, 14.
 - 2.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중심을 둔다—롬 8:11, 12:4-5, 엡 1:22-23.

III.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포함한다—롬 2:16, 16:25.

- A.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의 주제로서, 부활하신 후 믿는 이들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롬 8:10-11.

1. 이것은 복음서에서 제시되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주관적인데, 복음서에서 제시되었던 것은 주로 육체가 되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사셨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요 1:14, 14:17.
 2.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을 계시한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더 이상 단지 믿는 이들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시다—롬 8:9-11.
 3.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이제 믿는 이들 안에 그들의 주관적인 구주로 내주하시는 분에 관한 복음이다—롬 1:3-4, 15-16, 8:10.
- B. 하나님-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1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지방 교회들에 관한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는 완전한 형태로 된 하나님의 복음이다—롬 1:1, 3-4, 9, 16-17, 12:4-5, 16:1, 4, 16.
- C. 로마서에 계시된 대로 바울의 복음은 아들의 자격에 대한 복음이다—롬 8:14, 29, 갈 3:26, 4:7.
1.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롬 1:3-4, 8:3, 29, 히 2:10.
 2.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엡 1:4-5, 롬 8:28-30.
- D.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1. 먼저 주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롬 3:20, 23-28, 5:1-2, 8, 10, 17.
 2. 그들은 영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결국에는 생명의 성숙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실 것이다—롬 8:2, 9-11, 16, 29-30.
 3. 그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함께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할 것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증거이자 표현으로서 이 땅에서 지방 교회들로 실질적으로 표현된다—롬 12:1-2, 4-5, 11, 16:1, 4, 16.

IV.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로마서 8장이다. 이 장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해 넣는 것에 관한 것이다—롬 8:2, 6, 10-11.

- A.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사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장래의 비밀을 계시한다. 성경 안에서 로마서 8장은 모든 비밀 중의 비밀인데, 이것은 이 장이 특별히 이 다섯 가지 비밀을 밝혀 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롬 8:1-2, 4, 6, 9-11, 17-25, 28-30.
- B.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을 계시한다. 이 초점은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는 것이다—롬 8:10-11, 28-30.
- C. 체험적인 장인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체험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롬 8:2, 10-11.

- D. 생명의 영의 법은 오직 로마서 8장에서만 계시된다. 생명의 영의 법은 움직이지는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생명의 영의 법이시다—롬 8:2, 10-11.
- E.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놀라우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께서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정확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롬 8:2, 9, 11, 13-14, 16, 23.
- F.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에 생명이 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일하는 목표이다—롬 8:2, 6, 10-11, 29.
- G.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운명,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심에 놓인다. 결국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만아들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롬 8:29, 12:4-5, 계 21:10-11.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포함함

로마서에는 네 개의 정거장이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째 정거장, 곧 의롭다 하심이다. 5장부터 8장까지는 둘째 정거장인 거룩하게 됨이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셋째 정거장,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거장이다. 왜냐하면 12장은 믿는 이들이 지체들로서 한 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정거장, 곧 교회생활이라는 정거장이다. 왜냐하면 16장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들과 같은 여러 지역에 있는 지방 교회들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과거 19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해 왔지만, 누구도 이 책의 마지막 정거장이 지방 교회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1:1-4). 죄인들로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고, 그 후에 거룩하게 됨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됨은 변화인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한다. 이 몸은 여러 지방에서 교회들로 표현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삼고, 많은 진리들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이제 신약 전체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가 완성되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는 보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지의 교회들을 격려하여 <라이프 스타디>를 주의 깊게 연구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준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 마르틴 루터에게 질문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로마서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 말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의 설명은 단지 첫째 정거장에서 멈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어떤 책이든 읽으면 유익이 있다.”라는 중국 속담이 의미하는 바이다. 매일 <라이프 스타디>를 펼쳐서 그것을 연구한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장, 어떤 절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한 원인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는 복음이다. 우리가 각처에서 진리를 말한다면, 사실상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전환하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 그분의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대로를 열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

주님의 회복의 네 가지 기둥은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복음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생명은 교회를 산출하며, 교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은 매우 피상적이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죽은 후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세상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장래에 영생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이 시대에서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복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피상적이고 매우 빈약하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열여섯 장으로 되어 있고, 매 장마다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 1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빛진 사람이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 로마서 전체에는 지옥과 천당이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그보다는 먼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후에 거룩하게 됨, 그리스도의 몸, 마지막으로는 각지에 있는 지방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심지어 지방 교회들까지도 복음의 일부라는 의미이다.

만일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당'에 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가장 빈곤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와 동시에 영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매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매순간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결국 생명의 성숙에 이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비록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임을 보아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함께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한다. 이 몸은 지방 교회들로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풍성과 표현이다.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다.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사복음서뿐 아니라 로마서라는 복음이 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책을 복음으로써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전한다고 말한다. 로마서는 죄들의 용서로 시작해서 거룩하게 됨과 변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을 거쳐, 결국 교회들 안에서 교회생활을 사는 것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바울은 아버지, 아들, 영을 언급한다(9-11절).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이다. 생각은 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10절), 그 후에 영에서부터 우리 생각을 적시시어 우리 혼 안으로 들어오시며(6절), 마지막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한다(11절). 이런 식으로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중심이며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과 진리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멸망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번영이나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의 조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며, 그러한 지체들은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는 각 지방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주의 회복의 네 가지 큰 기둥, 153-154, 185-188쪽)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룸

넷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롬 8:29). 원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때 그분 안에는 신성만이 있었을 뿐 인성은 없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후에야 비로소 인성을 지니시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즉 그분의 인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인성은 죽음에 넘겨졌으며, 부활을 거쳐 신성 안으로 높이 올려졌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 부분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그분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지니신 하나님의 만아들이시다. 또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롬 8:19). 그분은 신성에 인성을 더한 만아들이시며, 우리는 인성에 신성을 더한 많은 아들들이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모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일을 하며 또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 자신을 억제할 수 있다. 그들은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의지도 강하지 않고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며 항상 실수를 연발하여 일을 그르친다. 우리가 점잖든 점잖든지 않든지 간에, 또 도덕적이든지 도덕적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성에 신성이 더해졌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첫 번째 성품은 우리의 원래의 본성, 즉 인간의 본성이다. 두 번째 성품은 더해진 하나님의 본성이다. 만일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증가될 것이며 우리는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결코 나가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좋아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충만한 은혜이시다. 그분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다. 만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만 신성이 인성 안에서 살며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분이셨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 많은 아들들의 삶은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하다. 우리의 인성은 신성에 의해 사는데, 이는 우리가 신성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만아들이 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많은 아들들과 그분의 만아들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제 삼일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만아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구성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을 살아 나타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분은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그들의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와 인내와 겸손과 같은 신성한 속성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탁월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단체적으로 만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22-24쪽)*